

세계 향한 '전남의 꿈'... F1 타고 과속, 빗더미 안고 STOP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내년도 F1 공식 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5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패독내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인사 'F1 불똥'

조직위 파견 29명 복귀... 정원박람회 12명 가세로 원활한 재배치 불가능

F1 코리아 그랑프리 중단은 전남도 인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조만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F1 조직위에 파견됐던 인력 29명 중 일부나 전체가 본청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 체계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대회 중단에 따라 조직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해산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조직 직원은 불가피하고, 영암 F1 서킷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직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

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에 파견됐던 인력 12명도 조만간 본청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현재 F1 조직위에는 3급 1명, 4급 2, 5급 8명 등 29명이 파견돼 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에도 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등 12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 인력이 한꺼번에 본청으로 복귀한다면 사실상 원활한 재배치가 불가능해진다. 또 이번 정기 인사의 승진 폭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파견 인력까지 가세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남지역

에 U대회 경기장이 17곳이 배정됐기 때문에 대회 진행을 위해 도 인력이 U대회 조직위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3급 1명, 4급 2명 등 30~40명 규모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현재 광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자체 인사와 적체돼 있고, 문광부와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 인력을 수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와 안행부 등 U대회 관련 정부 부처들도 인력을 따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U대회 조직위에 포함될 수 있는 전남도 '뭉'도 줄 수밖에 없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최권료 협상 난항에 불가피...2015 대회 열릴 것"

박준영 지사 인터뷰

박준영 전남지사는 내년 F1 대회 무산과 관련, 5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최권료 협상이 길어져 어쩔 수 없이 내년 대회를 취소하고 2015년에 다음 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F1 대회를 치른 뒤 정상회담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FOM의 요구대로 내년 4월

대회를 치를 수 없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개최권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회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개최권료 협상 등에서도 우리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힘난했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또 "내년 대회를 원하고 해도 경주장 주변 차부품 고급브랜드와 연구개발사업,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F1관련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

객들이 영암 서킷에서 카트를 즐기고 있어 내년에 대회를 치르지 않더라도 활용 방안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F1대회는 전남의 미래를 보고한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며 F1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F1은 그동안 국가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누적적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미쳤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F1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후임 지사가) 도민들의 뜻을 따르고, 먼 미래를 보고 F1을 계속 추진할 것을 판단해 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킷 활용문제 등 후유증... FOM과 책임공방·소송전 예고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중단으로 영암 F1 서킷의 활용 문제 등 크고 작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F1 운영사인 FOM과의 법적 다툼도 예상되고 있으며, 후임 전남도지사가 2015년에 F1을 다시 개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전남도는 내년 한 해 대회를 중단 한 뒤 2015년에 다시 대회를 열거나 아예 FOM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영암 서킷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무리한 대회 추진, 결국 중단=그동안 F1은 "대회와 관련하여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잘못된 타당성 조사와 대회 개최 권료를 해마다 더 내야 하는 할증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성급하게 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경주장 건설과 인수, FOM 측에 지불한 개최권료 등을 포함해 1조원 가량을 쓰고도, FOM과 계약된 7차례의 대회 중 4차례를 치른 올해 현재 누적적자만 1900억원대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와 시민단체는 줄기차게 F1 중단을 요구해 왔고, 전남도는 FOM과의 재협상을 통한 개최권료 할인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적자폭을 줄이지는 못했다.

◇남은 F1 대회는 어떻게? =전남도는 5일 "F1을 완전 중단하는 게 아

경기장 신설	4465억원
도로망	550억원
TV 중계권료	295억원
운영비	1009억원(2013년 제외)
개최권료	1653억원(2013년 대회 280억원 추정)
인건비	45억원(2013년 제외)
합계	8017억원
□ 지방채 발행	
F1경주장 건설	868억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26억원
F1 경주장 인수	1979억원
이자	97억원
총액	9996억원(경주장 인수와 이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니라 2014년 대회를 취소하고, 2015년에 다시 개최권료 재협상을 통해 일정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회 중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15년 대회 개최를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최권료를 재협상해야 하고, 차기 도지사가 F1 대회를 다시 열지 등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도지사 일부 후보들은 "F1은 잘못됐다"고 밝히는 등 F1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회 중단에 따라 FOM과의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전남도와 FOM과의 협약서에 따르면 대회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

지만 전남도가 아예 F1을 포기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주장 사후활용 과제=전남도가 F1을 추진한 것은 역점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조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J프로젝트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F1에만 투자되는 기현상만 낳았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셈이다.

또 F1 중단으로 차부품고급브랜드 연구개발사업(786억원),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334억원) 등 F1을 토대로 한 관련 사업들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들 프로젝트는 F1을 중심으로 유치된 사업인데 배대가 되는 F1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우선, 영암 서킷을 활용해 다른 대회를 주최하거나 국내의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과 서킷 주변에 조성된 카트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영암 서킷 임대료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고, 카트장을 찾는 방문객을 늘려주고 있다. 조직위의 몸집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더욱 많은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경주에 따라 조직위를 축소하거나 해산하고, 영암 서킷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위의 몸집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더욱 많은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차기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이 낙연 "적자 개선 가능성 충분히 검토" 주승용 "여론·현실성·경제성 고려해야"

내년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5일 2014 F1(포플러원) 코리아그랑프리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F1대회의 향후 운영을 둘러싼 전남도와 F1 운영사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부르게 왈가왈부하면 우리 측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F1대회 운영사와 전남도의 추후 협의를 지켜보며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F1대회 계속 개최 여부에 대해 "대회가 없는 내년 한 해 동안 F1대회 적자개선 가능성과 도민

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파악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1년여의 비개최 기간에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3년의 잔여대회를 모두 포기할 때는 누적적자를 줄이고 연례행사화된 개최권료 논란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소송이나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차기 도지사가 지역 여론과 현실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들 생각좀 하고 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사고가 줄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행복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할 것!

- 운전 중 DMB,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돌발상황 발생시 평소보다 정지시간이 1.47초 늦어져 고속도로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DMB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약 2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고속도로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 빠른 길**
 - 스마트폰 교통방송 및 위치기반형 교통정보 앱 출시
 - 무인요금소(8개) 도입 등 통행이 서비스 스마트화
 - 차세대 첨단교통시스템 '스마트 하이웨이' 추진
 - *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 안전한 길**
 - 첨단 고속도로 재관리시스템 구축
 - 무인·무정차 노스톱 과적 단속시스템 구축
 -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지속 확대(110개)
 - * 교통문화 발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쾌적한 길**
 - 저렴한 가격/좋은 품질 EX일몰주유소 전국 확대(166개)
 - 식약청 HACCP 인증으로安心휴게소 구현
 - 남해선 폐도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4.6MW급) 운영
 - * 공기질 최호 고객중심 경영(CCM) 인증 획득